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 15세기 국어 파생법을 중심으로 -

구 본 관

1. 서 론

Aronoff (1976)에서는 하나의 접사 첨가 규칙이 둘 이상의 다른 통사 범주를 어기로 가질 수 없다는 단일 어기 가설 (Unitary Base Hypothesis)을 제안한 바 있다.¹ 단일 어기 가설에는 많은 반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Aronoff (1976)에서는 외관상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외들은 대부분 동음이의어적인 접사 첨가 규칙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

그런데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 중에는 동음이의어적인 접사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Scalise (1984)에서는 어기의 통사 범주를 엑스 바 이론의 통사 범주 자질 (syntactic category feature)을 이용하여 세분하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단일 어기 가설은 접미 파생 규칙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접두 파생 규칙의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 동사의 세 범주에 첨가되는 접미사들이 많아 잘 적용되지 않는다. 접미 파생 규칙의 경우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여 명사와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가 어기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는 형용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 [+N]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은 [+V]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어기가 어휘의 통사 범주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calise (1984)의 수정 단일 어

¹ Aronoff (1976) 이전에도 파생접미사가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국어 문법 연구자들도 파생어를 분석하게 되면서, 어기의 단일성과 어기와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의 단일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기의 단일성을 단일 어기 가설로 포착할 수 있다면 파생어의 단일성은 Scalise (1984)의 용어를 빌리면 단일 출력 가설 (Unitary Output Hypothesis)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현배(1961)에서는 파생어를 어기의 품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에 반해, 이희승(1957)에서는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의 품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각각 어기의 단일성과 파생어의 단일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² 'fashionable'과 'acceptable'은 둘 다 '-able'을 갖는데, 어기가 명사와 동사로서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ronoff (1976)에서는 이들을 두 개의 상이한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가 아닌 것으로 다루었다 (전상범 역(1987: 178)에서 재인용).

기 가설은 ‘하나의 접사 첨가 규칙이 단일한 통사 범주 자질로 표시할 수 있는 통사 부류를 형성하는 여기에만 첨가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국어의 파생 규칙도 대체로 여기가 단일한 통사 범주를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의 파생 규칙에서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의 접사 첨가 규칙이 ‘명사-형용사’, ‘형용사-동사’, ‘동사-부사’를 어기로 갖는 유형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형용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 [+N]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은 [+V]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동사와 부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N]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접미사는 항상 하나의 통사 범주 자질로 표시할 수 있는 여기에 붙는다고 기술할 수 있다.³

본고의 목적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국어의 파생 규칙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국어에 적용된다고 할 때, 이 가설이 규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셋째,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어의 조어법 기술을 더 정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료는 공식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15세기 국어 파생법으로 한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의 자료를 원용한다.

2. 단일 어기 가설과 단일성

우리는 단일 어기 가설의 ‘단일성’이 무엇의 단일성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어기 가설의 단일성은 어휘의 통사 범주 (lexical category)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파생 규칙에서 여기는 통사 범주의 단일성만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15세기 국어의 피동사 파생의 예를 살펴 보자.

- (1) ㄱ. 나랏 法에 자피여 <석보상절 9:8>
 ㄴ. 프리 솟글허 숲기더니 <월인석보 23:81>
 ㄷ. 뿔⁷새 놀이는 銘旌이 잇도다 <두시언해 22:1>

³ 통사 범주 자질의 분석은 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부사에 적용된 적은 없다. Aronoff (1976)의 단일 어기 가설이나 Scalise (1984)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논의에서도 부사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어의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는 통사 범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쓰이므로 부사도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장에서 이루어진다.

(1ㄱ), (1ㄴ)의 피동사 ‘자피-’, ‘술기-’의 어기 ‘잡-’, ‘술-’이 타동사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는 대부분 타동사이다. 물론 (1ㄷ)의 ‘놀이-’에서 볼 수 있듯이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놀-’과 같은 자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에 대해 어기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⁴ 만일 피동 파생 규칙이 타동사만을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파생 규칙에서 어기는 통사 범주의 단일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동성]과 같은 하위 범주 자질의⁵ 단일성을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뿐만 아니라 파생규칙의 어기는 의미 자질 내지 고유 자질 (inherent feature)의 단일성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자.

- (2) ㄱ. 길이 / *짧이, 높이 / *낮이, 깊이 / *얕이, 빨리 / *느리
 ㄴ. 멀리 / 가깝이, *무거이 / 가벼이

송철의(1989: 187)에서는 (2)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국어의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가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보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와 주로 결합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⁷ 그밖에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답-’도 일정한 의미 자질을 갖는 어기와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⁴ 15세기 국어에서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에는 ‘놀이-’ 외에도 ‘들이-〈두시언해 22:1〉’가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리-’, ‘올리-’ 등과 같은 예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자동사에 사동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되고 이 사동사(타동사)에 다시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는 타동사만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⁵ 동사는 그 동사가 갖는 논항의 성격에 따라 하위 범주 자질을 부여하여 나눌 수 있는데, 하위 범주 자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위 범주 자질과 관련하여 파생 규칙의 어기의 단일성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더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⁶ 사동 파생의 접미사 ‘{-이-}’나 ‘{-오-}’도 대체로는 어기로 타동사를 갖는다. 그러나 ‘더러히-〈월인석보 8:97〉’, ‘너도-〈용비어천가 4:7〉’ 등과 같이 피동 파생의 접미사보다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나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⁷ 송철의(1989) 참조. 한편, 15세기 국어의 경우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가 ‘덜이’, ‘느지’, ‘저기’와 같이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와도 쉽게 결합한다. 이는 15세기 국어의 ‘-이’가 현대국어의 ‘-이’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점과 활용어미로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점이 이유가 될 것이다 (졸고 1996 = 1998).

⁸ 현대국어에서 ‘-답-’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김장섭 1984). 이 중 ‘사내답-’, ‘서울대학교 도서관답-’과 같이 단어와 구에 모두 결합되는 ‘-답-’은 주로 [+인성] 또는 [+구체성]의 의미를 갖는 어기와 결합하는데, 특히 어기가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경우에 쉽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정답-’, ‘예답-’처럼 단어에만 결합되는 ‘-답-’은 주로 [-구체성]의 어기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어와 구에 모두 결합하는

이렇게 본다면 파생 규칙의 어기는 통사 범주, 자동사나 타동사와 같은 하위 범주 자질, 의미 자질이나 고유 자질 등의 단일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장을 형성할 때 동사가 다른 문장 성분의 여러 자질들을 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생 규칙에서 접사가 선행하는 어기의 여러 자질들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그렇지만 파생 규칙에서 어기의 단일성을 언급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어기의 통사 범주의 단일성이다. 또한 대부분의 파생 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기의 통사 범주의 단일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기의 통사 범주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도 통사 범주의 단일성을 중심으로 국어 파생 규칙의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해 논의한다.

통사 범주는 가장 쉽게는 품사로 대체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일 어기 가설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는 하나의 품사여야 한다’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의 품사는 연구자에 따라 5품사에서 11품사까지로 다르게 분류되어 왔다.¹⁰ 품사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각각의 품사에 대해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학교문법에서의 분류를 받아 들여 9품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 어기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런데 국어의 모든 품사가 생산성이 있는 파생 규칙의 어기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에서 생산성이 있는 파생 규칙의 어기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어휘 범주 (major lexical categories)에 속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인 것으로 생각된다.¹¹ 국어의 파생 규칙에서 어기로 참여할 수 있는 통사 범주

‘-답,-’을 파생접미사가 아니라 의존 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창섭 1994; 줄고 1996 = 1998 등).

⁹ 서술어가 문장에서 적당한 의미역을 갖는 논항들을 선택하고 이에 적격해야만 적합한 문장으로 인가 (license)하듯이 접사도 어기의 자질들이 적격해야만 인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¹⁰ 품사는 주지하듯이 문장 안에서의 직능 (기능), 형태 변화 여부, 의미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학교문법에서는 국어의 품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등의 9품사로 나눈다. 9품사에도 존재사나 지정사 등을 더하여 11품사로 나누기도 하고,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하나로 묶고,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 6품사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또 조사를 어미의 일종으로 보아 5품사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¹¹ 물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조어법 논의에서는 어기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외에 다른 품사도 쓰이는 것으로 기술해 왔다. 예를 들어 15세기 국어의 ‘외롭-’, ‘새롭-’ 등은 접두사 혹은 관형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기술되기도 했다. 15세기 국어의 공식적인 용법만을 고려한다면 ‘외롭-’, ‘새롭-’을 ‘접두사 혹은 관형사 + -롭-’의 구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단어가 형성될 당시에는 ‘새, 외’가 명사적인 용법을 가졌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명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5

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이라면 단일 어기 가설은 ‘하나의 파생 규칙은 어기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의 하나를 가지며, 반드시 이 중 한 부류만을 갖는다’로 정리할 수 있다.

3.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들

우리는 2장에서 논의한 통틀어 국어에서 단일 어기 가설이란 ‘하나의 파생 규칙은 어기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의 하나를 가지며, 반드시 이 중 한 부류만을 갖는다’로 정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국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은 대체로 이런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단일 어기 가설을 국어에 적용했을 때 제법 많은 예외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예외들은 다른 어떤 설명을 하거나, 다른 설명이 어렵다면 단일 어기 가설을 수정하여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어기 가설에 따라 국어 파생 규칙의 어기의 통사 범주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의 하나라야 하고 반드시 그 중 한 부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단일 어기 가설에 위반되는 예로서는 ‘명사-형용사’, ‘명사-동사’, ‘명사-부사’, ‘형용사-동사’, ‘형용사-부사’, ‘동사-부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 어기 가설에 위반되는 이런 예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각각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명사와 형용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3) ㄱ. 이 년잡고 열본 사름니 能히 훔 배 아닐썸 <월인석보 18:43>

ㄴ. 두 쌀이 같 곤 늘잡고 <법화경언해 5:104>

(3ㄱ)의 ‘년잡-’은 형용사인 ‘년-’과 ‘{-잡-}’으로 분석할 수 있고, (3ㄴ)의 ‘늘잡-’은 명사인 ‘늘ㅎ’과 ‘{-잡-}’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다면 ‘{-잡-}’이 형용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접미사 ‘{-잡-}’은 생산성이 거의

세기 국어에서 ‘새’는 관형사뿐 아니라 명사로 쓰였다. 따라서 ‘새롭-’은 ‘명사+ -롭-’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생산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한다면 어기뿐 아니라 파생어의 통사 범주도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현맛 (얼마의)’, ‘몇맛 (얼마의, 몇 번의)’ 등을 파생 관형사, ‘드러’, ‘브터’, ‘두고’ 등을 파생 조사로 보아(허용 1975: 259-261) 파생어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통사 구성의 어휘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즐고(1996=1998)를 참조). 다만, 기수사에 결합하여 서수사를 만드는 ‘-자히(>재)’, ‘-차히(>채)’ 등을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파생 규칙의 어기 혹은 출력부의 범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외에도 수사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 규칙은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규칙이 아니다.¹² 또, 접미사 ‘{-갑-}’이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늘갑-’을 제외하고는 없으므로 이를 ‘늘ㅎ + {-갑-}’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단일 어기 가설이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늘갑-’을 명사 ‘늘ㅎ’과 ‘{-갑-}’의 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3)의 예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보기 어렵다.¹³

둘째, 명사와 동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4) ㄱ. 새 늘개를 조차 한 번 서르 디나가미 어렵도다 <두시언해 21:17>

ㄴ. 보비 노리개엿 거슬 두 겨시다가 <법화경언해 1:101>

(4ㄱ)의 ‘늘개’는 동사 ‘늘-’과 ‘{-개}’로 분석할 수 있고, (4ㄴ)의 ‘노리개’는 명사 ‘노리’와 ‘{-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다면 ‘{-개}’가 동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일 어기 가설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노리개’밖에 없어 이 예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사와 동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는 현대국어의 ‘-보’에 의한 파생어에서 찾을 수 있다.

(5) ㄱ. 피보, 떡보

ㄴ. 짜보, 약보

(5ㄱ)에서는 ‘-보’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것을 보여 주고 (5ㄴ)에서는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을 보여 준다.¹⁴

셋째, 명사와 부사가 파생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6) ㄱ. 艱難하니 가슴며니 <금강경언해 5>

¹² ‘{-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1996 = 1998)을 참조하라.

¹³ (3)의 예를 제외하면 15세기 국어나 현대국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동시에 어기로 갖는 파생규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인구어에서는 명사와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파생 규칙이 제법 나타나는데 이는 국어에서의 형용사가 인구어에서의 형용사와는 달리 서술어로 쓰이므로 명사와 성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질이 완전히 다른 통사 범주가 동일한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3)과 같은 예는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아니라 분석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¹⁴ 곧 이어서 언급하게 될 것처럼 접미사가 어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에 이와 같은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많이 나타난다. ‘-보’처럼 명확하지는 않으나 ‘-성’도 ‘인사성’에서처럼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도 있고, ‘떡성’에서처럼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늦가온 가지엔 여르미 느죽호고 <두시언해 15:7>

(7) ㄱ. 아버지 子息 스랑호문 <석보상절 6:3>

나. 瞬은 눈 흔 번 곰죽홀 쏘시오 <법화경언해 6:101>

‘-호-’에 의한 파생어는 선행 어기의 의미에 따라 형용사 혹은 동사로 쓰인다.¹⁵ (6ㄱ)의 ‘艱難호-’는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 예이고, (6나)의 ‘느죽호-’는 불구적인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 예이다. 그런데 이 어근 ‘느죽’의 통사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명사 혹은 부사로 본다.¹⁶ (7ㄱ)의 ‘스랑호-’는 ‘-호-’가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 예이고, (7나)의 ‘곰죽호-’는 불구적인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 예이다. (7나)의 ‘곰죽호-’에 쓰인 어기 ‘곰죽’에 대해서도 역시 명사 혹은 부사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국어에서 접미사 ‘-호-’에 선행하는 어근의 통사 범주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임흥빈(197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근 분리 현상에 근거하여 명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첩어를 이루어 상징어 부사로 쓰이므로 부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⁷ 만일 (6나), (7나)의 ‘느죽’, ‘곰죽’의 통사 범주를 부사로 볼 수 있다면 ‘-호-’가 명사와 부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예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와 유사하게 선행 어기에 따라 동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면서 불규칙적인 어근과 결합하는 것에는 ‘-이-’가 있다. ‘-호-’ (현대국어의 ‘-하-’)는 현대국어에서도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다.¹⁸ 15세기 국어에서는 잘 나

¹⁵ ‘-호-’가 파생접미사인지는 어근인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호-’를 어근으로 본다면 (6), (7)의 예는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용법의 ‘-하-’가 쓰이는데, 파생접미사로 보는 관점과 어근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다만, ‘-되-’와 대립하여 각각 능동사와 피동사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¹⁶ 동사 혹은 형용사 어기에 ‘-옥/육’이 결합하여 불규칙적인 어근으로 쓰이는 예에는 ‘ㄱ죽’, ‘그속’, ‘느죽’, ‘어득’, ‘머죽’, ‘고죽’, ‘구죽’ 등이 있다. 이현희(1987)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상태명사적 어근으로 보아 명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승녕(1981: 128~129)에서는 이들이 상징어로서 부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¹⁷ 접미사 ‘-호-’에 선행하는 요소를 상징어 부사로 보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이들이 파생접미사 ‘-호-’에 선행할 때 첩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구죽구죽호-’처럼 ‘-호-’에 선행하는 요소가 첩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파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사+동사(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이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¹⁸ 현대국어의 ‘-하-’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예에는 ‘가난하-’, ‘사랑하-’가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깜찍하-’, ‘꿈찍하-’ 등이 있다. 혹시 이들을 이미 언급한 ‘구죽구죽하-’와 마찬가지로 ‘명사 혹은 부사와 동사(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이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 이런 예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 셈이다. 현대국어의 ‘-하-’가 상징어 부사와 결합할 때는 ‘출렁출렁하-’, ‘반짝반짝하-’처럼 상징어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들도 ‘부사와 동사(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 혹은 이러한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타나지 않고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파생접미사¹⁹ 중에도 ‘-거리-’, ‘-대-, ‘-곳-’, ‘-맛-’, ‘-스럽-’과 같이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 것들이 있다.²⁰

현대국어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중에서 명사를 어기로 갖기도 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사 혹은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기도 하는 예가 제법 많다.²¹

- (8) ㄱ. 겁장이, 고집장이
 ㄴ. 또드락장이, 콜룩장이
- (9) ㄱ. 식충이, 애꾸눈이, 육손이
 ㄴ. 개구리, 뺨꾸기, 기러기
 ㄷ. 살살이, 훌죽이, 덜렁이

(8ㄱ)은 ‘-장이’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예이고, (8ㄴ)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 예이다. (9ㄱ)은 ‘-이’가 명사를 어기로 하여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로 쓰인 경우이고, (9ㄴ)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여 동물 이름을 나타내는 파생어로 쓰인 경우이고, (9ㄷ)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여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로 쓰인 경우이다.²² 그밖에도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현대국어 파생접미사에는 ‘-장이’, ‘-질’ 등이 있다.²³

이와 같이 명사와 명사 혹은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예는 제법 많이 나타난다. 이 불규칙적인 어근의 통사 범주를 부사로 본다면 이러한 예들은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한 것으로 볼

‘-하-’가 상정어가 아닌 일반적인 부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더하-’, ‘못하-’ 등이 있는데, 이들도 ‘부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 혹은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¹⁹ 현대국어 파생어의 예는 주로 고영근(1973 = 1989: 601~653)을 참조했다.

²⁰ 이 중에서 ‘-거리-’만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난다 (실제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구물 어리-<능엄 7: 81>’에서처럼 ‘-이’가 약화된 ‘-어리-’로만 나타난다). ‘-거리-’가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가탈거리-’가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기웃거리-’, ‘덜렁거리-’ 등이 있다. ‘-거리-’와 결합하는 어기는 대체로 ‘-대-’와도 결합한다. ‘-곳-’이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심술곳-’, ‘암상곳-’ 등이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새살곳-’이 있다. ‘-맛-’이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궁상맛-’, ‘능청맛-’ 등이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능글맛-’, ‘지질맛-’이 있다. 또, ‘-스럽-’은 ‘복스럽-’, ‘사랑스럽-’처럼 주로 명사를 어기로 형용사를 파생하는데, ‘시원스럽-’처럼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기도 한다.

²¹ 파생접미사들은 어휘 형태에서 발전한 것과 문법 형태에서 발전한 것이 있다.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는 주로 어휘적 의미를 띠는 파생 접미사들인데, 이들은 어휘 형태에서 발전한 것들로 생각된다.

²² (9ㄱ), (9ㄴ), (9ㄷ)에 쓰인 ‘-이’가 동일한 파생접미사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²³ ‘-동이’가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꼬마동이’, ‘막내동이’가 있으며,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졸래동이’가 있다. ‘-질’이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가워질’, ‘계질질’ 등이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땀꿀질’, ‘버둥질’ 등이 있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 절에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것이다.²⁴

넷째, 형용사와 동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10) ㄱ. 이바디에 머리를 좃스보니 <용비어천가 9:49>

ㄴ. 밧바당이 썩샤디 짜히 눅눅가뵈 업시 흔 가지로 다흐시며
<월인석보 2:40>

‘-이’는 주로 동사(구)를 어기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인데, (10ㄱ)의 ‘이바디’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10ㄴ)의 ‘눅눅가뵈’는 형용사 ‘눅눅감-’과 ‘-이’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가 형용사를 어기로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이와 같이 ‘-이’의 어기로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는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된다.

15세기 국어에서 동사를 어기로 하여 명사를 파생하는 생산적인 파생접미사의 하나가 ‘{-음-}’이다. ‘{-음-}’은 15세기 국어에서는 다음 예에서처럼 동사만을 어기로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ㄱ. 닐굽 거르를 거르시고<석보상절 6:17>

ㄴ. 꽃 도코 역를 하느니<용비어천가 1:1>

그러나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에서는 ‘기쁨’, ‘즐거움’, ‘괴로움’ 등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음-}’ (현대국어의 ‘-음’)이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²⁶ 이는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 (동명사형 어미)로 쓰이던 ‘-음/음’이 근대국어 이후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인 ‘{-음-}’ (혹은 ‘-음’)에 합류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⁷

²⁴ 명사와, 상징어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 이 명사가 의미상 동작성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는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일반 부사와는 달리 동작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곧 이어 논의될 것이지만 상징어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동작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이 동사와 동일한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기도 한다.

²⁵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소위 동사성 명사 합성어를 만드는 접미사로 ‘집지시’, ‘거름거리’처럼 구를 어기로 하기도 한다. 어기가 구인 경우에도 ‘가삼알피’와 같이 동사 구뿐 아니라 형용사구 (혹은 형용사절)를 어기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²⁶ 조일규(1993: 65)에 따르면 근대국어에서 ‘-음’이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예에는 ‘게어름<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1:14>’, ‘서름<삼역총해 2:4>’ 등이 있다.

²⁷ 주지하듯이, 15세기 국어에서는 동사를 어기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동명사형 어미)인 ‘{-음-}’이 형태상 구별되었었다. 그러다가 근대국어를 기점으로 ‘오/우’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형태상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대국어의 경우에도 비록 형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양자는 형태상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르’로 끝나는 동사 (혹은 형용사)가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얼음’, ‘얼음’과

형용사와 동사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예에는 부사 형성 파생 접미사 ‘-이’도 있다.

(12) ㄱ. 思愛를 머리 여희어 어즐코 아득하야 <석보상절 6:3>

ㄴ. 네 모로매 밥 조리 머거 <월인석보 9:35>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주로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접미사인데, (12ㄱ)의 ‘머리’가 이를 보여 준다. 그런데 (12ㄴ)의 ‘조리’는 동사 ‘졸-’과 ‘-이’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가 동사를 어기로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의 어기로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제법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다.²⁸

그밖에 15세기 국어의 파생 규칙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것에는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인 ‘{-이-}’,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인 ‘{-ㅂ-}’, 사동 파생접미사인 ‘{-이-}’와 ‘{-오-}’, 강세 파생접미사인 ‘{-왈-}’, 부사 형성 파생 접미사인 ‘{-오-}’ 등이 있다.²⁹ 물론 이들 접미사의 어기로 형용사와 동사가 같은 비중으로 쓰이지는 않고, 파생접미사에 따라 동사 혹은 형용사 중에 하나가 주로 어기로 쓰인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15세기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 규칙의 접미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파생 규칙이 동사와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것은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 절에서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동사 혹은 형용사와 부사가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같이 나타나지만, 명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는 ‘음’, ‘엷’과 같이 나타난다. 물론, ‘동사 어간 + 명사형 전성어미 ‘-음’의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삶’과 같은 명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의 형용사를 어기로 한 ‘게여름’, ‘서름’, ‘기쁨’, ‘즐거움’, ‘괴로움’과 같은 형태들은 ‘형용사 어간 + 명사형 전성어미 ‘-음’의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보아 파생접미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²⁸ 15세기 국어에서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파생접미사로 쓰일 뿐 아니라 굴절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파생접미사로 쓰일 때 뿐 아니라 굴절어미로 쓰일 때도 ‘-이’는 어기로 형용사와 동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6 = 1998)를 참조할 수 있다.

²⁹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노래’, ‘너비’에서처럼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현희(1987)에서는 ‘뜯기’, ‘뜨기’를 동사 ‘뜯기-’, ‘뜨기-’ 혹은 ‘뜯-’과 접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 ‘{-ㅂ-}’는 ‘알프-’, ‘슬프-’에서처럼 동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可憐호호(<말>)-’에서처럼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도 있다. 사동의 ‘{-이-}’나 ‘{-오-}’도 주로 (타)동사를 어기로 하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더러워-’, ‘너트-’와 같은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예도 있다.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오-}’는 주로 동사를 어기로 하는데, ‘세우’와 같이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예도 있다.

(13) ㄱ.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 <법화경언해 2:138>

ㄴ. 말쌈미 보드라하 모든 몹스물 즐기 호느니 <석보상절 13:40>

{-압-}은 15세기 국어에서 주로 ‘이(i)’나 ‘ㅣ(j)’로 끝나는 동사 어기와 결합하여 정감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파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ㄱ)의 ‘즐겁-’은 동사 ‘즐기-’와 {-압-}의 결합이므로 이런 제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3ㄴ)의 ‘보드랍-’은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 *보덜’과 {-압-}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예로 생각할 수도 있다.³⁰ 그러나 이에 대해 이현희(1987)에서는 동사 *보드리-’를 재구할 수 있으므로 제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편, 석주연(1995), 이지양(1988)에서는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압-}이 ‘고맙-’에서처럼 명사와 결합하거나, ‘시끄럽-’, ‘징그럽-’에서처럼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와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옳다면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 {-압-}은 명사와 동사와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할 경우 {-압-}에 의한 파생은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압-}은 동사만을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대국어나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명사나 동사가 어기로 하는 예는 거의 없고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결합만이 생산적이다. 따라서 각 시기의 공식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한다면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³¹

하나의 파생 규칙이 공식적으로는 동사와 부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는 {-압-}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압-}의 어기의 통사 범주가 통시적으로 동사에서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동사와 부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형용사’, ‘명사-동사’,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 ‘형용사-동사’,

³⁰ 15세기 국어에서 *보덜’ 혹은 *보덜보덜’이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로 쓰인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후대형을 고려하면 상징어 부사를 어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³¹ {-압-}은 어기의 통사 범주가 동사에서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로 통시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시드리-, *보드리-와 같은 동사의 소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산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한다면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도 {-압-}은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가 쓰이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의 유형들 중에서 ‘명사-형용사’, ‘명사-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예가 거의 없고 각각의 파생어들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한편,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 ‘형용사-동사’,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 장에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것이다.

4. 단일 어기 가설의 수정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은 Scalise (1984)에서 제안된 것으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보이는 예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논의이다. 즉, 명사[+N, -V], 형용사[+N, +V], 동사[-N, +V]로 통사 범주 자질을 명세하여, 통사 범주의 자질이 단일한 통사 범주를 어기로 갖는 경우 수정된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Scalise (1984)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받아 들이면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서 문제가 되었던 유형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명사-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파생 규칙은 [+N] 자질을 공통으로 갖는 것으로, ‘형용사-동사’를 어기로 갖는 파생규칙은 [+V] 자질을 공통으로 갖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각각의 파생 규칙이 수정된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Scalise (1984)는 어기의 통사 범주 자질을 명사[+N, -V], 형용사[+N, +V], 동사[-N, +V]로 명세하여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미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의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는 통사 범주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있으므로 부사도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사의 통사 범주 자질을 어떻게 명세하는 것이 좋을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N, -V]로 보고 논의를 진행해 보자.³²

그런데 국어에 이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다른 통사 범주로 보아 형용사는 [+N, +V], 동사는 [-N, +V]로 명세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대

³²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사 범주 자질의 분석은 주로 명사 [+N, -V], 형용사 [+N, +V], 동사 [-N, +V], 전치사 [-N, -V]로 명세되었으며, 부사에 적용된 적은 없다. 통사 범주 자질을 단일 어기 가설에 이용할 때에는 부사가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치사 대신 부사의 통사 범주 자질을 [-N, -V]로 명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따라서 비록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의해 [+V]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예가 너무 많다는 점은 다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동사와 형용사는 [+V] 자질을 공유하지만 형용사는 [+N], 동사는 [-N]으로 구별되는데, 국어의 형용사에 [+N] 자질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동사와 형용사를 다른 범주로 보기 어렵게 한다.³³ 더욱이 15세기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다른 통사 범주로 보는 것이 현대국어에서보다 더욱 어렵다.³⁴ 따라서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의 자질을 [-N, +V]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사와 형용사 각각은 단일한 통사 범주의 하위 범주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아니라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국어에서 하나의 파생 규칙이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동사와 형용사가 같은 비중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나 동사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어기로 쓰이고 다른 것이 어기로 쓰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고에서처럼 동사와 형용사가 단일한 통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단일 어기 가설로 포착할 수 없다. 어떤 파생 규칙이 어기로 동사 혹은 형용사만을 어기로 갖는다면 그것은 통사 범주의 단일성이 아니라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하위 범주 자질의 단일성을 갖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둘째, 국어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부사의 자질은 [-N, -V]보다는 [+N, +V]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언급

³³ 외국의 문법서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문법가들은 홍기문(1927)에서처럼 접두사나 관형사의 일부를 형용사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N] 자질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관형사나 접두사 일부가 인구어의 형용사에 가깝다. 국어의 형용사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인구어의 형용사와는 거리가 멀다.

³⁴ 중세국어에서는 하나의 용언이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예가 많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와 달리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 용언이 동사와 유사한 활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현대국어에서는 형용사 어간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예가 거의 없으나, 중세국어에서는 '꽃 도쿄 여를 하느니 <용비어천가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용사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하는 예가 많다.

³⁵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통사 범주로 묶어서 다룬다면, 어떤 파생 규칙의 어기로 동사나 형용사 중 하나가 주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2장에서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나 타동사 중 하나가 주로 쓰일 때 [타동성]과 같은 하위 범주 자질의 단일성으로 포착했듯이, 이러한 단일성도 하위 범주의 단일성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일 어기 가설을 위해 동사와 형용사의 통사 범주를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통사 범주를 달리할 정도로 큰 것인지 단일한 통사 범주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하나의 파생 규칙이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와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사의 하위 범주 자질을 [+N, +V]로 보게 되면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는 [+N] 자질의 공유하는 것에 의해,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는 [+V] 자질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 자질보다 ‘+’ 자질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공통성을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부사의 자질을 [+N, +V]로 잡는 것은 국어에서 부사가 명사와 통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부사와 명사는 모두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³⁶ 또 명사가 중첩되면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⁷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 부사가 의미상 서술성을 갖는다는 점도 부사의 자질을 [+N, +V]로 잡는 이유의 하나이다.³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어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는 명사[+N, -V], 동·형용사[-N, +V], 부사[+N, +V] 중 특정의 ‘+’ 자질을 공유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³⁹

위에서 제시한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하면 문제가 된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부사’가 쓰이는 경우는 [+N]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동사-부사’가 쓰이는 경우는 [+V]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⁴⁰ 물론, ‘동사-형용사’가 어기로

³⁶ 국어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오늘’, ‘지금’과 같은 어휘는 명사와 부사로 쓰인다. 또, 국어에서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지만 보조사의 경우 부사와도 결합한다.

³⁷ 예를 들어 ‘구석구석’과 같은 예는 명사의 중첩이 부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³⁸ 국어의 단일 어기 가설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규칙적인 어근 (상징어 부사)의 처리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불규칙적인 어근 (상징어 부사)’이 쓰이기도 하고, ‘동사 (혹은 형용사)-불규칙적인 어근 (상징어 부사)’가 쓰이기도 한다. 상징어 부사를 제외한 부사가 그렇게 쓰이는 예는 드문 것으로 생각한다. 상징어 부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어의 접미 파생 규칙에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는 주로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형용사-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용사-동사’는 하나의 통사 범주로 묶을 수 있으므로 상징어 부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어의 접미 파생 규칙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아니라 단일 어기 가설만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³⁹ 통사 범주 자질을 명사[+N, -V], 동·형용사[-N, +V], 부사[+N, +V]로 하게 되면 명사[+N, -V], 형용사[+N, +V], 동사[-N, +V], 부사[-N, -V]로 하는 것에 비해 자질 표시가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통사 범주로 묶으면 특정 파생 규칙이 동사 혹은 형용사만을 어기로 갖는 현상을 잘 포착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⁴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부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할

쓰이는 경우는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통사 범주의 하위 범주들로 보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아니다.⁴¹

5. 예외가 나타나게 된 원인

본고에서 제시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동·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접미 파생에서는 이런 예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접두 파생의 경우는 ‘명사-동·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⁴²

(14) ㄱ. 덧가지, 덧거름, 덧그림, 덧니, 덧버선

ㄴ. 덧걸-, 덧나-, 덧달-, 덧입히-

(14ㄱ)은 접두사 ‘덧-’이 명사 어기와 결합한 예이고, (14ㄴ)은 동사 어기와 결합한 예이다. ‘덧-’ 이외에도 ‘명사-동·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접두사로는 ‘엇-’, ‘짓-’, ‘치-’, ‘맞-’ 등으로 꽤 많이 있다.⁴³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어에서 ‘동사-부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불규칙적인 어근 (상징어 부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고, ‘(-압-)’에 대해서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⁴¹ 지금까지 우리는 단일 어기 가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국어에 적용하기 위해 국어의 품사 내지 통사 범주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단일 어기 가설을 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에는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통사 범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전성 또는 품사의 통용으로 불러 왔다. 이런 현상을 조어법적인 관점에서는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으로 불러 왔다. 고영근·남기심(1985 = 1993: 186 ~ 188)에 따르면 국어의 품사 통용의 예는 ‘명사-대명사’, ‘대명사-부사’, ‘수사-관형사’, ‘대명사-관형사’, ‘부사-감탄사’, ‘명사-감탄사’, ‘명사-조사’, ‘조사-부사’, ‘명사-부사’, ‘형용사-동사’, ‘명사-동사’, ‘명사-형용사’, ‘부사-동사’, ‘부사-형용사’ 등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품사 내지 통사 범주를 달리 분류하면 이들 중 많은 부류들이 품사의 통용이나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어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입력부나 출력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주요 어휘 범주에 한정되므로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도 이들 품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면 ‘동사-형용사’로 쓰이는 예들도 품사의 통용이나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하위 범주 자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⁴² 현대국어 파생접두사 혹은 접두 파생의 예는 주로 안효경(1994)를 참조했다.

⁴³ ‘엇-’이 명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엇가게’, ‘엇셈’ 등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엇나가-’, ‘엇바꾸-’ 등이 있다. ‘짓-’이 명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짓고생’, ‘짓망신’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짓누르-’, ‘짓밟-’ 등이 있다. ‘치-’가 명사 어

접두 파생에서 접사가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어에서 접두사가 파생어의 통사 범주 결정의 주요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Williams (1981)의 우측 머리 규칙(Righthand Head Rule)에 따르면 영어의 합성어(compound words)에서 주요부는 우측의 요소가 된다.⁴⁴ 국어의 합성어도 대체로 이런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의 경우 합성어뿐 아니라 파생어를 포함한 복합어(complex words) 전체가 범주의 결정에 관한한 대체로 우측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그렇지만 이미 예문 (5)에서 제시한 ‘-보’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접미 파생법에서도 명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접미 파생법에서 명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예는 이 접미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⁴⁶ 국어의 접두사는 파생어의 통사 범주를 결정하지 않고 의미만을 더해 준다. 또한, 접두사는 대체로 접미사에 비해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그러므로 접두 파생법이 접미 파생법보다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여 동일한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와 동사(혹은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기와 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띠면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산성이 없는 파생 규칙이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통시적인 변화를 공식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리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새롭-’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 ‘{-듭-}’이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대국어에서 ‘새롭-’

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치사랑’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치감-’, ‘치담-’ 등이 있다. ‘맞-’이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맞고소’, ‘맞상대’ 등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맞겨루-’, ‘맞먹-’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안효경 (1994) 참조.

⁴⁴ Allen (1978)에서 제안된 “이다” 조건(Is A Condition)이나 Williams (1981)의 우측 머리 규칙은 모두 합성어 혹은 복합어에서 우측 요소의 자질이 전체 합성어나 복합어 전체에 삼투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Lieber (1981)에서는 좌측 요소의 자질도 삼투되어 올라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상범 1995: 417~418).

⁴⁵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어의 경우 ‘en-’과 같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두사가 어기의 통사 범주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어는 파생어도 합성어나 마찬가지로 통사 범주의 결정이 우측 요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⁴⁶ 조어 과정은 일반적으로 통사 과정보다 덜 규칙적이다. 심지어 생산적인 조어 과정에 의한 단어 형성에서도 어기의 통사 범주 제약이나 하위 범주 자질 제약 등을 위반하면서도 의미적으로만 통하면 단어 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조어 과정은 규칙의 관점에서 포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⁴⁷ 접두사가 어휘의미를 강하게 띠기 때문에 ‘헛짜’와 같이 ‘접두사 + 접미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구성도 존재한다.

은 관형사를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보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수 있으므로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⁴⁸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서 볼 수 있는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들 중에는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압-}’의 경우는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어기의 범주도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생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을 비롯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현대국어에서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로서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스럽-’은 주로 명사를 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접미사가 ‘별스럽-’, ‘잡스럽-’에서처럼 관형사 내지 한자어 어근으로 볼 수 있는 어기와 결합하기도 하고, ‘갑작스럽-’에서처럼 부사로 볼 수 있는 어기와 결합하기도 하고, ‘게걸스럽-’, ‘새살스럽-’에서처럼 상징어 부사로 볼 수 있는 어기와 결합하기도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통시적으로 어미와 같은 통사 구성 요소에서 파생접미사로 발달했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중세국어의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와 ‘{-오}’,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의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음}’, ‘-기’ 등이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여 동사나 형용사와 쉽게 결합하는 것은 이들이 활용어미에서 왔기 때문에 활용어미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⁵¹

본 절에서는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⁴⁸ Bauer (1983: 216)에서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접두사 중에서 많은 경우 통시적 변화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calise, 1984 (전상범 역(1987: 178)에서 재인용)).

⁴⁹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아주 높은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예를 들어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접미사가 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에서 ‘-스럽-’, ‘-롭-’, ‘-답-’ 등은 명사를 어기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인데, 의미 차이가 크지 않아 어기에 따라 상보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는 ‘-스럽-’은 ‘자유롭-: 자유스럽-’, ‘어른답-: 어른스럽-’에서 볼 수 있듯이 저지 원칙에서 벗어나 ‘-롭-’이나 ‘-답-’이 결합하는 어기와도 자유롭게 결합하기도 한다 (물론 ‘어른스럽-’과 ‘어른답-’의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것도 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⁵⁰ 임홍빈(1989)에서는 ‘오늘은 [[[그가 음]죄]스럽]다’와 같은 예에서 ‘-스럽-’이 심지어 구를 어기로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문장이 바른 문장인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⁵¹ 물론 이들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통사 범주로 묶는 논의를 받아 들인다면, 단일 어기 가설의 위반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 가설에서 벗어나는 유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접미 파생법이나 접두 파생법에서 파생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 이 가설에 위반되는 예들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어휘 의미가 강할 경우 의미만 통하면 어기의 통사 범주와 상관없이 조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서 결합 가능한 통사 범주의 유형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가설에 위반되는 예들이 나타났다. 생산성이 높은 파생 규칙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통시적으로 어미와 같은 통사 구성 요소에서 파생접미사로 발달한 것들 중에서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벗어나는 예가 있었다. 이는 그 접미사가 아직 통사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국어의 파생 규칙에 단일 어기 가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국어의 파생 규칙은 대체로 단일 어기 가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 가설에서 벗어나는 예도 적지 않았다.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는 대부분 이 가설을 수정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었다.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예들이 있었는데,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예가 나타나는 것은 이 가설이 국어의 파생법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경향성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 규칙에서 어기는 통사 범주, 하위 범주 자질, 의미 자질 등의 단일성을 갖는다. 이 중 파생 규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통사 범주의 단일성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로 통사 범주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했다. 통사 범주는 대개의 경우 품사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통사 범주의 단일성은 품사의 단일성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어의 품사 중에서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이어서 국어의 단일 어기 가설은 ‘하나의 파생 규칙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네 품사 중에서 한 부류만을 어기로 갖는다’로 정리할 수 있었다.

둘째, 통사 범주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국어의 파생 규칙에 적용해 보면 대체로 이 가설이 지켜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도 제법 나타났는데 이 예외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의 유형들 중에서 ‘명사-형용사’, ‘명사-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예가 거의 없고 각각의 파생어들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 단일 어기 가

설의 반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한편,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 ‘형용사-동사’,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단일 어기 가설을 수정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란 어휘의 통사 범주를 명사는 [+N, -V], 형용사는 [+N, +V], 동사는 [-N, +V], 부사는 [-N, -V] 자질로 명세하여 나누고 파생 규칙이 통사 범주 자질 중의 하나를 공통으로 가지면 수정된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논의이다. 그런데 국어에 이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보완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국어에서는 형용사와 동사를 다른 통사 범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로 묶어 동·형용사 [-N, +V]로 명세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의 부사의 통사 범주 자질은 [-N, -V]보다는 [+N, +V]로 명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넷째,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예외의 유형 중 한 가지는 접미 파생법이나 접두 파생법에서 파생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이다.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파생접사가 이 가설을 위반하는 이유는 어휘 의미가 강할 경우 의미만 통하면 어기의 통사 범주와 상관없이 조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공식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사들은 결합 가능한 통사 범주의 유형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설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생산성이 높은 파생 접사들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통시적으로 어미와 같은 통사 구성 요소였다가 파생접미사로 발달한 것들 중에서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벗어나는 예도 있었는데, 이는 그 접미사가 아직 통사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고는 단일 어기 가설과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파생 규칙의 어기에 대한 제약을 검토하고 국어의 조어법을 더 정밀하게 기술하려 하였다. 그런데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한 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휘의 범주를 통사 자질로 분석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사 범주 자질을 명사 [+N, -V], 동·형용사 [-N, +V], 부사 [+N, +V]로 명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론적인 사실과 통사론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더 세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73)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4) - 동요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 12 (고영근 1989b에 재수록).
- _____ (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남기심 (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_____ (1993) 개정판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구분관 (1992a) '생성문법과 국어 조어법 연구 방법론,' 주시경학보 9, 탑출판사.
- _____ (1996 = 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총서 29, 태학사.
- _____ (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집, 태학사.
- 김계곤 (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 ' 논문집4 (인천교육대학).
- 김동찬 (1987) 단어 조성론(조선어리론문법),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김창섭 (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 _____ (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석주연 (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132.
- 송철의 (1983) '파생어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 _____ (1989)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안병희 (1967) '문법사,' 한국어발달사(중),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안효경 (1994)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국어연구 117.
- 유창돈 (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윤동원 (1986) '형용사 파생접미사 {-스럽-}, {-롭-}, {-답-}의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서울사대) 23.
- 이광호 (1986) '미지의 '이'를 찾아서,' 어문학(국민대 어문학 연구소) 5.
- 이승녕 (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개정증보판, 1981).
- 이지양 (1988) "업", "집" 파생형용사에 대하여, 대전대논문집 7-1.
- 이현규 (1982) '접미사 '-답다'의 형태, 구조, 의미 변화,' 조규설 박사 회갑기념논총.
- 이현희 (1987) '중세국어 '둔집-'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 _____ (1991) '국어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이희승 (1957) 새고등문법, 일조각.
- 임흥빈 (1979) '용언의 어근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 _____ (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 전상범 (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조일규 (1993) '국어 이름씨 뒷가지 변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하치근 (1989) 국어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개정증보판, 1993).
-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기문 (1927) '조선문전요령,' 현대평론 1-5.
- Aitchison, J. (1987) *Words in the Mind*, Basil Blackwell.
- Allen M.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Bybee, J. (1985) *Morphology*, Amsterdam: Benjamins.
- Fabb, N. (1984) 'Syntactic Affixation,' Ph. D dissertation, MIT.
- Lieber, R. (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전상범 역(1987),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Basil Blackwell.
- Williams, E. (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 Wurzel, W. U. (1989) *Inflectional Morphology and Naturalness*, Dordrecht: Reidel.

ABSTRACT

The Unitary Base Hypothesis and Derivational Rules in Korean

Bon-Kwan Ku

This paper has reviewed with the object of the middle Korean whether Aronoff's Unitary Base Hypothesis or Scalise's Modified Unitary Base Hypothesis can be applied to Korean derivational rules. We assume that Korean derivational rules keep Unitary Base Hypothesis. There are pretty objections of this hypothesis, these we consider Modified Unitary Base Hypothesis. So we know that Unitary Base Hypothesis or Modified Unitary Base Hypothesis can be applied to Korean. In consequence, we certify that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hat this hypothesis is a phenomenon which has cross-linguistic universality. However, there are something which can't be explained as Modified Unitary Base Hypothesis in Korean derivational rules, this means that this hypothesis is a kind of tendency rather than an exact rule.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1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04